



이경수 (교사, 제주 바라밀 호스피스회 봉사자)

“죽음이란 육신의 옷만 벗는 것일 뿐 영혼은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것 아닙니까? 준비된 죽음이 있는가 하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일상을 잘 산 사람이 잘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올바르게 사는 법을 익혀야 죽음을 평온하게 맞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죽음의 임박성을 의식하면서 살게 될 때 만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되묻게 됩니다.”

“삶과 죽음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간암 수술 후 남 위한 삶 서원

초등학교 교사인 이경수씨는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 바라밀호스피스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정토사관 자재회’ 아미타 호스피스교육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가 호스피스 봉사자의 길을 걷게 된 사연을 먼저 들어보자.

이경수씨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간암으로 투병 중일 때였다.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조차도 불투명할 때 선배가 염주를 주었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염주를 돌리자, 마음이 편안해 졌다.

“수술을 받고 퇴원 후 1년이라도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교 책도 읽고 스님들의 테이프를 들었어요. 1년을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부처님 공덕으로 10년을 더으로 살았으니 앞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토마을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다. 그 후 방학 때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호스피스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3년 전에는 ‘제주 바라밀 호스피스회’를 결성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였고 초대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였다.

#기저귀 갈아 주는 일이 가장 쉬워

호스피스환자란 병원에서 의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판정한 환자를 말한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이다.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와준다. 그리고 환자와 죽음으로 이별을 해야 하는 가족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또한 호스피스들이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스피스환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에는 절망하거나, 죽음을

부정하거나, 왜 죽어야만 하는지 분노하거나, 자신의 죽음을 대하여 슬퍼한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거나,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지니고서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 유머와 여유로서 죽음에 임하여 밝은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튜브로 음식물을 투여해 준다거나 대소변을 받아낸다든가 이런 간병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런 간병활동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은 활동 중 가장 쉬운 일”이라고 했다. 오히려 염불을 하면서 환자와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것이 어렵단다.

#심리 안정, 극락왕생 희망 심기 주력

대부분의 환자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며, 처음에는 봉사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기 일쑤다.

호스피스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거나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해 주는 등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임종 시 최후 일념을 잘 챙기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봉사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봉사자는 정토사상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윤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윤회해서 극락정토에 새로 태어난다는 믿음을 환자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호스피스환자들과 잘 지내다가지고 헤어질 시간이 되면 죄를 지은 기분이고, 환자분들도 왜 정을 주고 가느냐고 아우성을 치는 것만 같아서 발걸음을 돌리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미 예견된 죽음이지만 돌보면 환자분의 죽음을 접하게 되면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단다.

호스피스교육을 마치고 처음으로 실습을 나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처님의 설산고행상보다 더 바짝 마른 할머니와 마주하게 되었다. 할머니의 경계심과 이경수씨의 두려움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 처음엔 손을 잡았고, 나무동지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다리와 무릎을 만졌다. 할머니의 무릎에 손을 올린 지 30여분이 지나자, 싸늘한 다리에서 온기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때 이경수씨는 자신의 그런 작은 활동에 반응을 해 준 할머니가 너무나 고맙다고 한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이경수씨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궁금해졌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요. 저도 맑은 이렇게 하면서 실천은 잘 하지 못합니다. 호스피스활동이 바로 육바라밀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호스피스 활동을 하다보면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것이 부질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지요.”

‘웰다잉(well-dying)의 문제가 웰빙(well-being)의 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경수씨의 말은 ‘삶과 죽음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염불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이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지막 가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이경수씨는 앞으로도 호스피스환자들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염불을 해줄 것이라 했다. 이경수씨의 희망사항은 제주도에 호스피스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죽음에 임한 사람들 누구나 다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해 주고 싶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막힌 삶이라고 한다면 재보시를 비롯하여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은 열린 삶이 아닐까 싶다. 열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의 돌담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운을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액자, 오마니반메홍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아심경(소, 중)
· 천수경(소, 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 대)
· 묘법연화경요품(중, 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액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소형금책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병풍,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제례용품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부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셔서 세세생생 선군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운이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사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목부속품 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사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소) 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앉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려하고 특별한 마음을 위하여 주와 인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사에도 사용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자폭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인브로 스님 만행용으로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운이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중에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흑신비합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복,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발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현기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금강염주는 1,500℃이상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기운과 93%의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금강염주는 1,500℃이상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기운과 93%의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1SET(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하)